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주라도 처음에는 영계의 최고의 주관권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몸부림쳐 행하면 들어간다. 그리고 최고로 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깊이 보고, 느끼고, 행한다.
2. 주의 행하심을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못 보고 모르고 대하기도 하나니,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그 심정에 맞게 대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주를 목숨 걸고 알고 대해야, 자기 육도 영도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살게 되느니라.
3. 깨닫지 못하면 봉사다.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심정 답답하게 여기시고, 봉사를 대하듯 대해 주신다. 그리고 눈 뜬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4. 성경에 나오는 과거 시대를 보아라. 하나님은 봉사는 봉사대로 대해 주시고, 눈 뜬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펴 나가셨다. 영의 나라에서도 그들과 같이 누리고 사신다.
5.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쌍한 봉사들이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봉사를 만들었나니, 무지의 죄가 봉사가 되게 하였음이라.
6. 신앙의 봉사들도 나름대로 보고 느끼며, 제 생각대로 말하고 헐뜯고 악평하면서 살아간다. 육이 신앙의 봉사면, 그 영도 봉사다. 고로 그 영도 육도 생명길을 못 찾고, 사망길로 가서 살고 있다.